

## 한반도의 고구려

김진경 | 105호 고구려실 | 18:00~18:30

475년 가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재위 412~491)은 병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의 수도 한성(현재 서울)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7일 만에 북성(풍납토성)을 함락시키고, 남성(몽촌토성)을 공격하였으며, 백제 개로왕을 붙잡아 아단성(아차산성) 아래에서 살해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왕은 포로 8천명을 생포하여 돌아갔으며,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에 주둔하면서 금강 북안까지 남진하였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동성왕 대에 다시 한강유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500년 무렵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을 떠나 아차산 일원에 보루를 구축하였으며, 551년 백제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에서 철수하여 임진강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성곽은 대부분 성벽 둘레가 300m 내외인 작은 산성, 즉 보루堡壘이다. 아차산 보루군은 전성기 고구려의 남쪽 변방에 위치한 최전방 군사요새일 뿐만 아니라 남진경영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차산은 지리적으로 한강 상류에서 하류 지역으로 오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며, 중랑천과 왕숙천변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아차산 보루군에서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실용기로 명문이나 부호 등이 새겨져 있으며, 홍련봉 2보루에서는 520년에 해당하는 ‘경자庚子’



명 토기편이 출토되어 절대연대의 단서를 주었다.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와 마구류는 당시 군사 편제와 전쟁 양상을 보여주며, 철제농기구·공구·용기 및 어망추, 방추차, 고드랫돌 등은 병사들의 평상시 생산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홍련봉 1보루에서는 아차산 보루군 중 유일하게 기와와 와당이 출토되어 높은 위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각각의 보루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 분포 현황

제53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4월 26일)

## 테마전 <고성 옥천사 괘불>

유경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1808년에 제작된 <옥천사 괘불>은 석가모니의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상징한 불화입니다. 이 괘불은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보현보살의 석가삼존釋迦三尊을 중심으로 석가모니의 2대제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그리고 타방불他方佛의 주요 인물만으로 영산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사중寺中에 있던 괘불이 찢어지고 오래되어 새롭게 괘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괘불의 크기는 약 10m로 비단 20폭을 이어 바탕을 삼았습니다. 불화의 채색은 붉은색[朱주], 녹색, 남색을 중심으로 살구색, 검은색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인자한 인상의 평온한 느낌을 주는 인물표현과는 달리 불화의 채색과 문양은 매우 화려합니다. 이 괘불도를 그린 승려는 화악평삼華岳評三이 수화승首畫僧이 되어 16명의 화승과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평삼은 지리산 쌍계사 출신의 승려로 그림을 그리는 화승 이전에 구도를 수행으로 하는 선승禪僧이었습니다. 17명의 화승의 손에서 태어난 <옥천사 괘불>은 장엄하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 괘불은 19세기 전반 괘불의 조성 사례가 적어지는 시기에 제작된 희소한 괘불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괘불과 함께 제작된 괘불함을 함께 선보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괘불함은 목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의식이 개최되지 않는 평소에 괘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본 전시에서는 옥천사에 소장되어 있는 <옥천사 시왕도>, <옥천사 목조동자상> 등을 함께 전시합니다. <옥천사 괘불>의 가치와 경남 고성 옥천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1. <옥천사 괘불>, 1808년, 건본채색, 1,006×747.9cm, 경남유형 제299호

## 사경의 보존

박미선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사경寫經은 불경을 필사하는 것이다. 사경의 조성은 공덕을 쌓는 행위였으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양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알려진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은 발문에 닥나무 뿌리에 향수를 주어 기르고 관여자는 모두 보살계를 수지하였다는 등 사경의 제작 과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사경의 경우 사경소 및 사경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원에서 사경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자 글씨를 잘 쓰는 승려를 보냈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어 당시 사경의 제작이 분업화된 인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경 제작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으며, 주로 왕실의 후원을 통해 사경이 조성되었다. 현존하는 사경은 당시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사경에는 푸른색으로 염색한 종이인 감지紺紙가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사경의 명칭을 종이의 색 또는 원료를 기준으로 백지, 감지, 상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사경의 제작에 어떠한 종이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청색의 종이를 예로 들면, 고려시대 사경에 사용된 종이는 청자지靑磁紙, 취지翠紙등이 있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종이를 아청지鵞靑紙라고 지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1속束의 아청지는 조선 후기에도 수십 냥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원하는 색상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재료와 다양한 가공 기술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림 1. 감지금니사경紺紙金泥寫經 (고려시대)

## 신라 적석목곽분 사회의 도교적 내세관

신대곤 | 108호 신라실 | 19:00~19:30

신라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높게 봉분을 쌓아올려 무덤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다양한 물품들을 무덤 안에 부장하였을까? 부장은 일종의 폐기 행위이므로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낭비인 셈이다. 그러나 낭비만은 아닌 것이, 왕실의 위세와 왕위 계승권자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외적 행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덤에 부장된 수많은 기물器物들은 죽은 피장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살아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정성들여 기물과 음식을 만들고, 피장자의 영혼이 신선세계로 승선昇仙하기를 바라면서, 염원을 담아 진귀한 재화를 아낌없이 무덤에 매장하였다. 거대한 무덤의 외형과 부장품은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을 조성하였던, 5~6세기 신라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과 신앙적 내세관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인의 도교적 타계관他界觀은 토기, 칠기, 금속용기, 마구, 무기 등에 장식적 형상과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적석목곽분 중 매장주체부인 목관과 부장케에는 피장자의 승선에 필요한 도구들과 내세에서 소용되는 기물들이 주로 매납되었다. 그 중에서도 천마총 출토 천마도장니와 금동용봉문유개합金銅龍鳳文有蓋盒에 묘사된 도교적 타계관은 황남대총 북분 출토의 은잔, 백제계로 추정되는 식리총 금동식리나 백제금동대향로의 신선 관념과 상통한다. 특히 금동용봉문유개합에는 용, 봉, 조탁어문鳥啄魚文, 어문, 서수문瑞獸文, 쌍조합체문雙鳥合體文 등 신선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적靈的 요소들을 묘사하였다. 적석목곽분 조성 시기 신라인의 내세관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정신세계와도 직접적으로 상통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부장되는 부장용 장식 토기의 상징적 문양과 금동용봉문유개합의 도교적 문양 간에는 차이가 있다. 왕과 귀족의 상층부 정신문화와 민중의 토속적 하층문화 간에는 어느 정도 계층 간 차별적인 정신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마총天馬塚 금동용봉문유개합과 천마도장니, 채화판 등에 묘사된 여러 문양들은 선계仙界의 영적 동물과 우주만물의 윤회와 재생再生에 대하여 사실적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용봉문합의 서조瑞鳥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정신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세부적으로는 신라 재지적 문양요소와 연결된다. 금동용봉문유개합에 시문된 여러 신선세계의 구성요소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같이 천상계天上界, 신선계神仙界, 인간계人間界, 지하수생계地下水生界라는 타계관에 입각하여 전체적으로 구도를 설정하고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이 선도적仙道的 인식에 따라 금동용봉문유개합의 길상적 문양은 피장자의 승선을

기원하는 당시의 내세관을 충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천미총 기물에 보이는 여러 문양들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 삼실총 등 5세기 대에 조성된 고구려 고분벽화와 상통한다. 이것은 중국 전국戰國 이래 한대漢代의 한화상석에서 정형성을 보이는 신화적 정신세계에 연원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적 계세관념繼世觀念에 기반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라인의 도교적 타계관의 내용을 신라 적석목곽분 출토 여러 기물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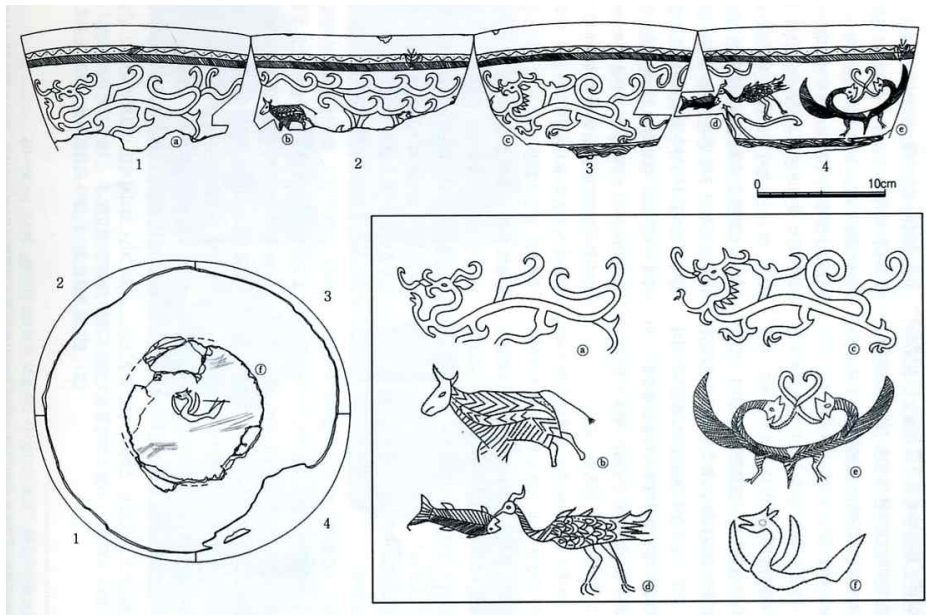


그림 1 .금동용봉문유개함의 동부胴部 및 저부底部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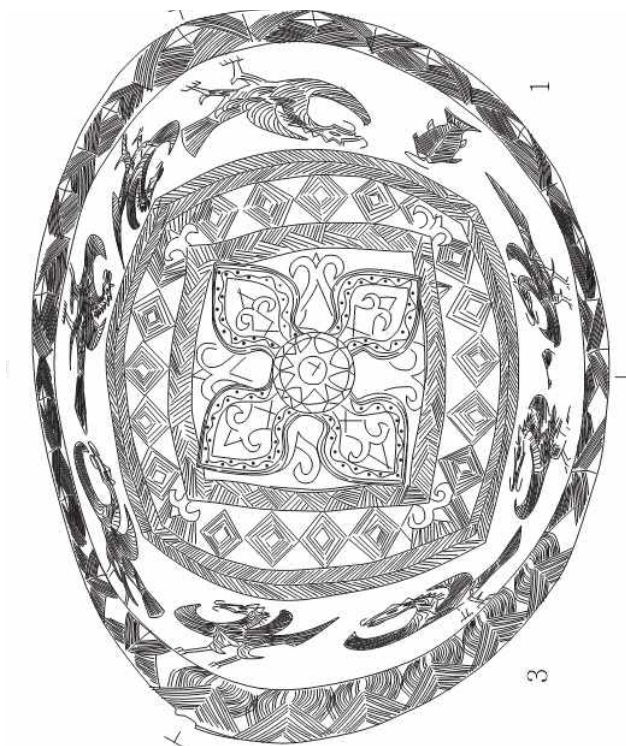


그림 2. 금동용봉문유개함 개부蓋部 문양